

OG3)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훼소재의 식물명 현황에 대한 연구**

박소영*, 안영희
중앙대학교 식물응용과학과

1. 서 론

화훼의 기능성 및 역할이 증대되고 시대 및 사회적 요구의 확대로 인해 꽃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2004년에 화훼장식기능사, 2005년 화훼장식기사가 신설되었으며, 더불어 실내식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화훼소재들의 수와 식물명들이 정확한 범주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화훼소재의 재배와 수입화훼소재를 취급하는 도매상으로 인해 다양한 화훼소재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식물명이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화훼소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식물명을 통한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국립수목원, 산림청 등에서 국가식물자원정보 DB작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조경수목, 한국 자생식물에 대한 정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화훼시장에서 유통되어 지고 있는 화훼소재에 DB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유통되어 지고 있는 화훼소재들을 DB작업하고,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훼소재의 유통명의 종류와 실태, 유통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명, 잘못된 유통명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유통명을 제시, 수정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서울(남서울 화훼공판장, 구파발 화훼단지, 강남꽃도매상가, 양재동 꽃시장)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훼소재의 종류와 식물명을 조사하였다.

식물명에 대한 조사는 화훼상인과의 인터뷰를 통한 구두설명, 거래내역서 및 계산서, 식물명찰표에 표기된 식물명, 화훼 디자인교육 기관생들의 인터뷰 등을 통한 구두설명 등을 토대로 조사하였으며 국내유통화훼소재를 크게 절화와 분화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학명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유통명을 조사 분류하였다.

조사된 식물명에 대한 문헌검토는 원색 대한식물도감(이창복, 2003), 원예학 용어 및 작물명집(한국원예학회, 2003)을 위주로 고찰하였으며, 600가지 꽃도감(한국화훼장식교수연합회, 2003)등 기타도서들은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된 국내 유통되고 있는 화훼 소재는 절화는 총 80과 214속 287종이였이고, 분화는 총

85과 252속 380종이며, 총 조사된 화훼소재는 총 107과 344속 494종이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통명의 현황을 분류해보았다.

표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명에서 유래되어 식물의 유통명으로 사용되는 것은 총 16과 23속 43종으로 노루오줌(*Astilbe chinensis* var. *dauidii* Fr., 아스틸베), 솔채꽃(*Scabiosa tschiliensis* Grunning, 스카비오사), 폴협죽도(*Pholox paniculata* L., 플록스) 등이 있었다.

표준명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유통되는 식물의 유통명은 총 19과 25속 29종이었으며, 녹영(*Senecio rowleyanus* Jacobs., 콩짜개), 속새(*Equisetum hyemale* L., 마디초), 개운죽(*Dracaena sanderiana* Sander. 'Virens', 만년청), 청미래 덩굴(*Smilax china* L., 망개), 노랑혹가지(*Solanum mammosum* L., 여우머리), 노박덩굴(*Celastrus orbiculatus* Thunb., 까치밥나무) 등이 있었다. 해당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 잘못 불리지는 경우, 생긴 모양의 특성을 따라 붙여진 경우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표준명을 통해 식물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통현장에서 화훼식물에 대한 의사 소통시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식물의 표준명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통현장의 상인들에게 정확한 표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식물의 표준명과 사진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하여 유통현장에서의 식물명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준명을 축약하며 불리어 지는 식물의 유통명을 조사한 결과 총 22과 33속 44종으로, 온시디움(*Oncidium* spp., 온시), 포인세티아(*Euphorbia pulcherrima* Willd., 포인), 스파티플럼(*Spathiphyllum patinii* N. E. Br, 스파티), 글라디올라스(*Gladiolus* × *grandavensis*, 라스) 등 유통과정의 편의상 축약되어진 것들이 조사되었다.

또한 표준명과 유통명이 학명 그대로 이용되어진 경우도 36과 80속 89종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화훼에 대한 부르기 쉬운 표준 식물명으로서의 전환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유통화훼시장의 시장명의 현황으로 볼 때 현재 유통되어지고 있는 화훼소재들에 대한 정확한 DB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식물명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요약

국내 유통되고 있는 화훼소재들의 정확한 식물명의 사용확대를 통한 유통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화훼소재의 DB구축을 위해 국내 유통 화훼소재의 식물명에 대해 조사하였다. 유통 과정에 있어 식물명이 혼용되고 있어 판매자, 구매자간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새로이 수입되어 지는 화훼의 경우 식물의 도입시기에 부르기 쉬운 식물명으로 전환 후 유통될 수 있도록 식물명에 대한 유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아직 식물도감에 표기되어지지 않은 식물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식물명을 정하여 기록하여 올바른 식물명 정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上, 下), 향문사.
- 한국원에학회, 2003, 원예학용어 및 작물명집, 한국원에학회.
- 한국화훼장식교수연합회, 2003, 600가지 꽃도감, 부민문화사.